

7년여의 유형사리후 질식당원 허익선생

1. 유형사에서 질식당원 허익선생

나는 가정부인의 한 사람으로 잘 쓰지 못하는 글로써 책과
각과 같은 사실들에 대하여 쓰려고 한다.

주 나는 근 20년 동안의 긴 세월을 북조선에 4가지 나의 남편
허익과 함께 살어온 사람이다.

최근 20년 동안의 허익에게 대한 사실들과 같은 그때 북조선 내
정세에 대하여 내가 아는 것을 쓰려고 한다.

내가 쓰려고 하는 사실들은 하나도 거짓이 없는 내가 직접 보고, 들
고 지나는 나의 생활에서 한 데 기록하고 있다.

먼저 허익에게 대한 간단한 이력부터 시작 하려 쓰겠다.

허익은 1911년 9월 18일 Дзядковск 구역 자우촌 여탄
농촌 민농반의 가정에서 출생하였다. 그후 소학교를 졸업한후
"이탈"이란 글에 가서 칠년제인 중학교를 졸업한후 원종소왕명

시 자범 권은 학교를 졸업하였다. 1932년부터는 Дзядковск
시조선 중학교에서 교원 또는 교장으로 일하였다. 다음 1934년

에 Ленинград 종합 대학 어문 학부에 입학하여 1939년에 2종
합 대학을 졸업하였다. 그후 1939년부터 Казарцевск에서

서 Ташкент 시 교원 대학에서 일하였다. 소련 조국전쟁시기
에는 Казарцевск Губинское 구역 중학교에서 일하였고

1940년 - 1943년 시기에는 문맹 척결에 복무하였다. 다음 1943
년 부터는 Узбекистан Уртинское 구역 중학교에서 일하였다.

~~1946~~ 1946년 가을에 북조선 정부의 요청에 의하여 소련 정부의
공산당의 파견으로 36살이후에의 한 사람으로 북조선으로 발
하러 나갔다.

북조선에 가서 처음에는 김일성 종합 대학 어문 학부 강좌장으로
일하였다. 그 같은 해는 평양시 사범대학 학장, 인민경제학

학 학 장으로 일하다가 1954년부터는 북조선 륜공당 중앙
당 학교 교장으로(일하였다) 1959년 까지 계속 일하였다.

이 상언을 허위에게 대항 이력은 중시하고 다음 계속하여 쓰겠다.
던 허위에게 대항 이력은 중시하고 다음 계속하여 쓰겠다.
1956년부터는 소련에서 4가
일하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채용해 줄라는 사건이 시작되었다.
그 말에 대한 권혜복 조선어에서 소위 "사상검열"라는 단어가 시작
되어가고 있고 그 "사상검열"은 처음에는 소련에서 4가 일하고 있는
중요 간부들을 위해서 시작하여 가고 그 말에 대한 권혜복 조선어
간부 일군들, 권혜인민들, 소련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을,
중국에서 4가 사할 때, 일제시대 이후로 조선어 명문들을
장 열심적으로 활용한 사람들을 만날 조선어에서 이 큰 애국자
를 깨닫는다 그 길로써 허위에게 대항 하였다.

그 사상검열에 걸린 많은 사람들을 허위를 당하여 관공
주; 모 ~~비~~ 농장(소위)으로, 북조선어 관광, 광산 지역 행공
한으로 깨닫게 되어서 크게 가는 길로써 깨닫게 하는
부족한 정책이 권혜복으로 권혜복하고 있다.

그 사상검열에 걸린 수 많은 사람들을 허위에서 한 사람으로
로 되었다. 다시 허위에게 대항 계속하여 쓰겠다.

허위는 북조선에서 4가 되는 19년 동안 해방후 북조선으로
계통에서 꾸준히 일하여 온 사람이다.

아문은 거를 ~~있~~이 1959년 가을에 허위는 중앙당 학교 교
장에게 해임되고 청진 광산대학 부학장으로서로 가라고 명령하
였다. 그러나 그 단장을 깨는 그것만으로도 허위에 청진
으로 깨닫게 하고 차를 깨닫게 하고 있는 허위를 깨닫게 하
게 중시 시키어 가고 중앙당 학교에 불어 넣고 5-6 개 월을
안이나 깨닫게 하여 먼저 허위를 깨닫게 하였다.

그 길을 의향 ~~이~~ 때 때 가는 것은 버려 줄 수 없다.
그 시기에 북조선에 있던 사람들은 가질 말 것 ~~이~~ 4가 하는 생각한
주 령치 활용법, 종파주의, 가족주의, 소련 사상이 ~~있~~다,

은.

조선에서 나간 사람들과 친한다는 사실, 아이들과 내가 조선 국적을
 가리고 있다는 사실, 아이들을 조선으로 유학보내는 사실 그
 예까지 원인을 죄를 줄 수 없게 과하게 하는 것은 그러한 죄를
 죄를 사해가리고 청춘 광산 재향은 절대 없이 불려가고 1959년
 벌에 허위이든 북조선 공로장에서 출장 여권 행정을 낼 게 되었다.
 출장 행정이 4월 후에 러날을 끌어다가 합남로에 가지 배치
 를 맡이라고 행정 하겠다. 합남도 안쪽에 사는 수동은 이루 보내 주고
 수동에서 사는 신철 수동한 여 한 환 광으로 보내 주게 되었다.
 환광 업무부 예서를 공문을 하기에 끝 하겠다. 허위의 어클하고 근현
 환 광에 살아가서 막 되었다. 허위이든 원래 그 전 광 여 아주 나쁜
 사람이다. 취급 시 절에 능숙함을 알고 난후 그 여 열로 저쪽 크로
 를 맡어 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허위와 나쁜 교장에서 허위 리기 원부러 여 러 번을 걸쳐서
 조선으로 리쿠는 문서를 중앙에 제기 하겠다. 작가지의
 탈로 번번히 기 췌를 당하고 말았다. 나는 여 리만을 걸쳐서 소위
 중앙장 잘 자 조부 자 무를 과 못까지 자 현 사실을 물어 이기 하겠다
 나 가 아무 필요 없겠다. 그 원 관을 쓴 북조선 평무와 공로장 여 리시
 를 설립 하노라고 짐신 병과 문 양으로 불 쓰고 있었다.

건 강치 못 하고 아무 큰 거 큰 것은 죄 없게 여 불 쌍 하 게 고 씬
 하고 있는 허위이를 어떻게 하나 구원 하 게 가지고, 세 월 여 불
 러 가노라 명 라 해 명 하 게 가지고 조선에 와서 그 리고 보고 싶
 려 여 들과 친척을 볼 못까지 여 불 한 일 들을 몇 말 하 면 시
 잘 여 불 깎 가 호고 여 나의 큰 불 무척 이었다. 그래서 나 는 남 아
 있는 주 아 들 을 조선에 가 례 가 가 MOCBA 시 인 KORA
 MOCBA에서 공부 하 르 루 제 예 환 후 민 차 초 원 이루,
 허위이 있는 환 광으로 갖 여 갖 가. 수 동 환 광 여 가지 4년
 이란 긴 세월을 나 는 허위이와 함께 그 광에 살 이를 맞설게

되었다. 북조선에 대해 불을 쬐고 그 환광에서 그 구렁뚱이가
몸시공할 것이다. 그래서 칠월은 환로공작팀 방한구석에
서로 살았고, 남의 집 뒷방에서 그 할아버지 각가지고 심을타가
가 힘에 힘을 다하여 알무부르움과를 비 방으로 환방짜리
짐을 짐겨 리었다. 그래서 자기 팀이라는데서 살기 시작하
였다.

환광에서 사느라만 우리는 큰 괴년과 같은 처지에서 살아갔다.
수우보라는 그 주재원의 한 자식이 우리를 못살게 하였다.
우리는 수우보런지 친하지도 못하고, 권후하지도 못하고, 의술까지
드름지하면서 허약의 죽을 짜라야 하는 사름까지 있었다.
후수가 우리와 친하게 지내는 것을 그 주재원 자식이 알기만
하면 별가지 수단으로 그물을 심어 놓고 못살게 하였다.

주재원 자식들이 두 차례 말을 조직하지 않으면 사람을 본인과
우리에게 그 사살을 권하게 우군 하였다. 허약이는 그런
중로공 일을 하면서도, 그 권감이 나쁜 것은 환화가면서 열심
적으로 일하게 했다. 그 특적인 바깥쪽 지붕고 살아가기 서둘러가
면 그 어를 한 문제를 다 해명하고 살이 붙는 희망이 있다
나르 역시 나의 힘에 자라는데까지 허약이를 죽이고, 방조하고
보살피면서 살아가게 했다. 우리는 틈이든 의롭게 살아가게 했다.
그 의롭고, 천대 느리고, 몇시를 벌어가면서 살아가던 그
사살을 내는 이들을 다 살 수 없다. 각가지고 생과 공란을
무릅쓰고 활어가면서 하루 하루 새 물이 흘러가서 무언이
관긴세 물을 살아가던 일은 30여 명이 활강해 물이 지나간 은을 여
사도함상내 타라후에 때를 써서 내 발을 괴롭히고 있다.

허약이는 그런 중로공을 하고 난 후에 큰 커넥따가 달는 열열 열바다
직립 환광내루 사 회공원으로 나가군 하였다. 나르가 권무언의
한 사름으로서 인민반에서 자기 리는 사 회공원이란 말에 계속

3. ~~하가하하~~

~~하가하하~~했다. 몇가지 일을 다하여 보았다. 형은 조항 지 습도 때 보았고 한 걸
로 지어 보았고 환광 건축 사업에 요구되는 들 길은 곡리가 부어 나 온 쪽 이고 다 나
었다. 그런데 화를 볼 줄 나 갖다가 은 후에는 나쁜 며칠씩 일 지 볼 하고 앓고 지냈다.
북조선 정부와 공로장을 받을 분 전 학에 권학을 할 수가 못하게 그 무언 한
까지도 권학을 하노라고 무언 한을 볼 때 다가가지고 힘 나리 한을 받든 후 그
힘이 희한에 구멍을 풀러가지고 소위 구멍한 이란 한을 가지고 망르려하고
수사르 정군 하였다. 그 구멍한은 가스 울루며 다 구실 하에 매터 지 땀에서
~~하~~ 사람들이 다 나 죽어 가고 있었었다. 어떤 가족들은 물막 죽고 말았다.

구멍한이 가스 울루며 다 구실 하라고 하나, 할수 없 어 우리도 그 구멍한을
받들 어 가지고 사 용 하겠다. 이리 죄인과 같은 처 지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그
정부와 당의 지시를 실천 하리 라고 산다면 그 죄를 어떻게 하겠는가?
북조선 근로자 - 공로장 농민들의 그 기관 ~~하~~ 큰 한 한 심활은 다 이렇다고
알 할수 없다. 환광 한수 이 라는 것으로 사람의 사는 징 여라고 할수 없다.

환광 공로자들의 배급은 모음자 800rp. 학생들(아이들) 400rp 가 정부인
를 300rp 가 배급이 있다. 그 배급의 30% 밖에 백 먹고 그 남은 여타 가지 잡곡
과 수로는 감 범이 살아야 하는 것이었다. 아이들과 가 정부인 들은 하루 두 끼
우 겨우 먹는 정도였다. 주 인을 받 령 심을 보강 하노라고 부 인들은 허리리 를
줄 타 배 령 사 산다. 러우 허 부 인들이 해 산 후에도 배를 굶 으면 서 마기 를
릿 가 리 먹이고 ~~살고 있다~~ ^{살고 있다} 그 일 다 나 한심 하고 볼 상 한 리 알 할수 없다.

환광 공로자들의 생활은 아주 미랄 하겠다. 날마다 감 범이 살아 났어 된 감,
관 장소 음을 가지고 먹고 사는 정도였다. 리어 볼 기류 까지 리 여 리 달을 걸치
어 한 번씩 한 인구에 100rp 정도를 주고 있었었다. 그런데 그 령 거 큰 한 하 령
생선, 지어 마 큰 땀 때 까 리로 머리 먹기 힘들었다. 일 년 치고 르고 리 라는
것은 수장분 생분, 조 류 국 ~~하~~ ^하 건 분, 어 해 까 리 겨우 세 번을 걸치 어
먹는 행 태 이었다.

환광 배급을 가지고 살아가기는 아주 어렵었다. 그러나 나 는 꼭 가지
방 법으로 배를 굶 지 않고 살아가는 루 를 찾 하겠다. 그 식을 들 때

문에 밑줄이 세 번씩 꼭 평양에 다녀 오곤 하겠다. 평양에 다녀 오거든
은 쪽은 연천부에서 구는 흥행음이라는 것이 있어 된다. 그래서 나는
평양에 있는 소련 대사관에 가서 약속 하겠다. 쿠일년에 세 번씩
나를 평양에 가도록 대사관 월급은 ⁴⁵⁰⁰원 정도에 달하고 약속 하겠다.
소련 대사관에 사는 나의 약속을 여기까지 하고 이리 약속 한 날 자라
를 나를 평양에 가도록 청하여 구곤 하겠다. 그래서 나는 별 큰 한이
없이 흥행음을 내어 가지고 평양에 다녀 오곤 하겠다.

소련 대사관 영사부에서 나에게 많은 방포를 주었다. 그러니까
나한테만 나는 어떻게 살았겠는지, 나의 연애로써도 리어겠는지
~~누가 말하겠는지~~ 모른다. 그때 대사관 영사부장 *Topun*
Hukonarebir *Dygonyayob* 의 그 후회말과 그 인정을 나는
재민리 잊을 수 없다.

평양에 다녀 오면 때때로 대사관 상점에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필수품들과 찰히 나에게 극히 요구되는 약들을 사 가지고 다니면
서 허위약 권장을 보낼 피곤 하겠다. 사탕이 먹고 사는 식료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구입하든 ²⁰⁰⁰원 정도는 꼭 있어야 한다. 이외로는 선에는
김을 한 번 가져 가지고 다니는 것이 없었나. *Warca*, 김치까지 팔
은 것으로 아르곤도 있다. 그 ¹⁰⁰⁰원 정도의 김치를 들면 자서치고, 그리고
나만 쓰고 평양으로 향할 때 금에 와서도 내외 리우에 띠를 걸곤 한다.
허위약고 평은 리 말 할 것 같으나 리만 나로 소련 국적을 가지 있다면
죄르 판판한 값으로 팔으면 시 살았다.

북조선 인민들은 월급에 현반로써 두루 먹이 살지 못하고 짜깁
하고 온 천 한 푼도 못 벌여 살고 살면서 그 일생을 끝내 준다.
한광 줄라 심부름은 자식을, 잘 그 두 개 원이 큰 자식은 리어되어
미 할 수 있는 무릇 한 인권을 이었다. 그 한광 리에 현반로 자식은
그 리는 금방 강 교 줄 일 생이 있다. 그 자식으로 우리를 모른 리 하고
지나간다.

허억이는 환광 업무부 중 큰 중 큰 원 중 앞 밖 에 의 일 하 면 서 고 평 하 였 다.
그 건강 이 나빠 타 나 나빠 리 는 것 은 헤 지 않 고 열 성 적 으 로 일 하 였 다. 미 려 게 하
나 죽 지 않 고 살 아 보 겠 다 는 희망 이 었 다.

환광 의 아내 인, 강 위 원 광, 심 부 중 중, 구 재 원 여 원 과 가 족 은 먼 처 나
우 리 를 밀 게 르 않 고 열 성 하 는 정 르 에서 우 리 를 깨 지 하 였 다.
그러 나 환광 돈 을 가 족 은 습 은 비 중 은 이 할 것 없 이 항상 우 리 를 존 경
하 였 다. 그 들 은 항상 우 리 를 위 러 하 였 고 우 리 의 미 를 환 사 정 을 리
해 하 여 주 겠 다 였 다. 그 한 가 지 고 망 련 일 로 나 는 언 제 나 벗 을 수 없 다.

허억이는 그 금 돈 을 들 하 는 고 생 보 라 심 리 상 고 흥 더 러 심 하 여
그 건강 이 점점 나빠 리 고 있 었 다. 그 선 세 자 들 상 하 가 짝 이 없 었 다.
아이 들 과 친 척 들 로 하 나 르 없 이 다 만 우 리 들 이 그 앞 을 들 수 는 하 나 닳 면
해서 그 날 그 날 을 살 아 갔 다.

이 생 에 살 것 같 이 모 든 가 지 근 관 과 고 생 을 힘 이 가 면 서 그 여 을 한 처 지
에서 살 라 가 허억이는 1966년 4월 26일 소위 "구 명 환"의 가스 중독
으로 55세 환부에 미참 하게 세 상 224고 밧 었 다. 환 사 스 금 루 이 미
얼 켜 생 거 밧 는 지 누가 알 가? 큰 락 들 (미 밧 로) 막 아 들 밧 는 지 모 른 다.
그 때 때 타 침 허억이는 혼자 짐 에 있 게 리 었 다. 5월 1일을 알 루 고 소
련 대 사 관 에서 나 를 평 양 에 오 라 고 청 하 였 었 다. 소 련 여 서
공 부 하 고 있 는 여 이 들 게 서 소 식 은 대 표 사 관 에 올 고 평 대 사 관 상
점 에서 식 물 품 로 몸 사 가 라 는 내 용 이 었 다. 타 침 4월 24일 위 역
에 나 는 평 양 에 가 여 오 래 고 래 밧 었 다. 나 는 평 양 에 가 여 불 밧 르 다 보
고 식 물 품 로 몸 사 가 리 고, 목 씌 은 검 직 을 끌 고 목 9 아 침 에 죽 사 었
이 라 르 데 큰 착 하 나 허억이가 나 를 마 중 하 지 않 였 다. 그 런 여 는 네 가
오 는 날 라 락 들 나 들 게 속 마 중 하 리 하 였 다. 타 침 역 에 서 나 가 아 는
가 령 부 인 한 여 라 가 나 를 마 중 하 밧 서, 이 러 나 여 서 점 에 가 여 밧
하 고 나 를 출 관 열 을 로 마 음 하 였 다. 나 는 가 지 고 감 질 직 을 다 그
아 는 여 가 짐 에 부 의 리 고 링 신 영 이 갈 리 짐 타 랑 에 들 여 서 42주

재원이라는 자식이 ~~나~~ 나중하에 나오면 서 나를 짐이 못 들 어 주 게
하겠나 나는 너무도 기뻐 하 여 서 나에게 있는 바르 박 힐 을 주 하 여
그 구 재원 과 식 을 우리 치고 집안 에 쫓아 들 어 가 나 허위 의 시체가
나를 나중 하겠나 허위 이 는 잘 와 듯 이 고 모히 는 어 있 겠나
그 때 에 나 의 행 행 여 어 때 하 면 ^어는 가 하 는 것 은 누구 나 잘 알 겠 나.
그런 기 박 된 일 이 깎 아 리 에 있 겠는가? 그 기 박 하 고 설 는 일 들 어 스
우주 와 말 할 사 각 은 일 이 나 는 의 롭 닷다. 그 고 흥 느 린 은 생 활 은
하 면 서, 서 로 설 들 을 치 주 볼 면 서 ^어로 하 고 살 바 자 자 가 허위 이 는
원 목 은 그 세 월 을 하 직 하 고 떠 나 갔다. 그런 기 환 된 이 깎 아 리 에 있
을 가 하 고, 생각 하 고 어 령 게 들 면 나 을 깎 는 지 말 이 잘 잘 하 여 지
어 닷다. 어 령 게 하 나 서 ^어로 죽 지 알고 말 보 듯 그 고 심 하 려 낄 을
엿 볼 하 면 서 살 바 보 깎 나 고 하 면 우 리 우 사 람 의 ^{이렇게} 희망 은 무 어 지 고
알 닷다. ↓

그 구 재원 이 라는 자 식 은 내가 있는, 짐 이 빈 들 을 다 가 지고, 방
환 구 식 에 허위 의 시 체 를 주 고 우리 짐 방 안 을 다 키 번 지 면 서,
무슨 이 될 문 건 이 나 어 려 보 래 고 결 열 하 여 보 앓 으 무슨 문 건
어 우리 짐 에 있 겠는가? 그 ~~행~~ 령 게 짐 안 을 키 번 지 면 서 어 려 보 래
내가 오 기 원 에 방 안 을 다 정 순 하 고 ~~행~~ ^행 이 볼 을 직 히 엿 으 나 는
인 차 사 람 들 을 끼 서 라 들 근 하 면 다. 사 실 우 리 짐 에 무슨 문 건 이
있 겠는가? 그 바 개 환 과 식 들 은 사 람 이 건 강 에 구 리 는 박 르 문 건
할 을 모 르 는 인간 들 이 엿 나.

허위 이 는 심 장 은 주 구 를 아 푸 게 리 이 ^{Бориспг} 이 라는 심 장
약 을 제 주 바 수 근 하 면 다. 그 바 개 환 인간 들 은 그 심 장 약 이 득
약 (사 른 어 뛰 고 죽 는) 인 가 고 크 크 하 고 쪽 주 살 하 면 다 고 인 칭
하 면 다. 나는 그 를 의 크 크 이 더 무 나 이 클 하 여 서, 기 박 히 어 서, 아
문 생 각 은 나 지 많 고 령 신 이 다 루 하 고 말 이 잘 잘 하 여 어 쫓 을
물 혼 다. 자 수 들 로, 아 문 권 령 들 로, 가 까 운 친구 들 로 더 나 는 의 롭

은 나에게 그런 비참한 일을 생각하려다가 혼자 살았었다는 죄까지 할부
하게 리본나 나의 행진이 어려하였다는 것은 누구도 말할것이다.

그러나 나는 악을 내어 쫓음을 차리면서 그 인권을 위하여 싸워야 할 사
임을 잊어 버리지 않고 결심하였다.

그때 마침 허구의 사랑 때문에 함부로 강요되고 바빠서 자
주 잤다. 그 인권을 허구에서 죄가 없다는 사실 하였고 불하면
서 나를 위협까지 하였다. 아픈 거든 영이 불쌍하게 그 생각과
가서 비참하게 세상 떠난 그에게 자살이란 죄까지 지우게 되
는 일이 너무나 어클 하아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생각하지 못했
다. 아픈 리 생각하니까 그 자살이란 죄를 벗기 위하여는 할 수 없
이 해부 하라고 승낙하였다. 해부한 결과 한카스 증류의 확실
히 나타났고 그 증류액이 멜로 그 건강이 매우 나쁜 사출이 라는 것이
라 증명 되었다.

그때 나는 의류는 사관으로서 그런 비참한 일들을 리본은 열흘을
생각하면 좋은 세월이 흘러간 주 30여 년이 리본은 물에 의식
을 시작하는 한다.

옛날에 자루를 늘어 이거지 늘 늘어 이거지 하는 식으로 그 인권을
아픈 것이 아니라 리본 나에게 아픈 권리는 없었나. 지금 생각하면 내
가 어떻게 살아가는 리본은 두 악은 지하는 비문이 생기는 한다.
할수 없는 일 부부 룬 룬과 몇 수 칼과 나쁜 자의 우 리 자살 권
에서 멀지 않게 했는 풍을 재기에 허구에서 채를 분하게 되었다.
장예 후 나는 강 위 원 강을 찾아서 이 비살 권에 나는 후라서 분
살겠으나 후 누구 권에 나 같이 있 ^계말라고 말 하 였다. 그 때 리본이
비 돌아 가신 강 위 원 강 액에 함 지 있는 기 되었다. 그 권 아무 리본
나를 리본 하면서 나를 품어 주었다. 그 아르 리본 일은 매우 고
말았다. 허구이를 보신 리본 10여 일 후에 나는 드림 양으
리본 양에 있는 소 리본 리사 관 령 사 부에 찾아 가서 자
리본이 이다기

~~이것이~~ 하 였다. 나는 평양에서 멀지않게 있는 소련 북은근에
물리에 허위사체를 다시 옮겨 모시려고 재수관에 제가하
니 그렇게 하 라고 인차승인 하 였다. 소련 북은근 때문에 지반사
체를 다시 옮겨 모시는데는 북조선도 지부에 제가하에 해결하
라고 하 였다. 그 지부라는 데서는 매일 매일 밀치고 끌었다.

재수관 영사부장 (Торпун Никоноров Дыгорягов) 과
함께 나는 예타기관으로 44멘시 힐스 언덕에 끌끌내 거리를 남
하고 밟았다. 무엇일까요 허위가 살아 있는 이야 부연 증만 가진
세월을 환광에서 켜켜 살아 줄 하련 그 사실을 몰루고 두고 옛날 하 면서
살아 보겠 다 된 나의 허방로 간 데 있어 무너 지고 밟았다.

허위가 한 사람을 살리려고 나는 세상에 나가 그 런 별고 생
을 다 하 였지만 그 사람은 세상에 없고 밟았다. 환광에서 할수 없는
일을 다 하 였다. 너무도 무식물이 곤란하여서 짐바랑에 땅을 파고 채소
를 심어 밟고 밟 밟을 리어서 그 게 한들 어더 가지고 허위의 경감을 보강
하 였다. 배금술라 가지고 살면 식량을 치는 일은 매우 힘들었다
나는 다 해 지 않고 이 일을 밟을 먹이면서 그 게 한들 멀 리 록 하 였다.
이런 일 리 현을 소 소형 것을 다 쓰 과 맨 이 들을 다 할 수 없다.

옛날에 고 생 끝에서 죽어 갔다고 하 것만 그 죽은 나를 피하여 지부
가서 나에게 한 일은 옛 말을 기치고 밟았다.

허위 이 들 아 갖 지만 나 까지 죽은 나 맨 외롭히고 심하든 아이들을
누가 를 볼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고 ^{비가} 밟는 모양이다. 그때 나는 뒤 네 까
지 죽 지 앓 앓는다고 형 하 였었다. 그러나 신 사 할은 살 길을 찾 든다
는 옛 말은 맞 든다고 생각 하 였다.

그래서 나는 아찌 할수 없이 허위 이 들 아 간지 5 개 월 만에 78월
(1966년) 에 허위 사체를 환광 살을 재기에 모신 채로 두고 이
Moccka 에 서 공부 하고 있는 아이들 ^과 Moccka 를 오 게 리 였다.
부모를 아 본 집 귀 귀 밟 조 로 있어 공부 하고 있는 아이들 생활

6.

행복은 아무런 한 없이도. 그러나 그때는 쉼 쉼과 공안 광의 격 격으로
 내가 Mockba 에 혼자 일 년은 못되나 나에게 사행은 주었고 적으나
 타 잊지 않게끔 방조로 큰 걱정과 애써 말까지 하였다. W
 잘 아를 삼 행 제가 다 때 학은 나 왓고 말 나 들은 학 사 원 까지 나
 왓 나. 온 홀에 와서 는 아를 삼 행 제가 각각 제 짐 식 략고 남부 립지
 왕게 살고 있다. 잘 나 온 아주 적지 만 허구의 사회 날 광을 말 으면 시 할
 야 강 나. 즉 아를 삼 행 제 에 거는 고 생 끝 에 나 이 왓 나 고 나 는 생 각 한 나.
 즉 20 년 중 이 나 북조선 에 가서 허구의 와 나 나 비 칼 한 생활 과
 부모 를 나 아 모 방 조 드 있 이 와 온 히 비 를 끌고 들 벗고 공부 하고 있던
 아이 들 에 그 고 생 현 실 은 내가 살 아 있 는 온 홀 가 리 르 언 제 나 잊 을 수 없 나.
 내가 죽 고 이 고 사 실 들 을 나 보 들 것 이 나. 나 는 나 이 앞 은 수 립 이 나.
 나의 청춘 시절 과 그 건강 은 말 못 지 상 부 원 이 라고 부 르 는 북조선
 에 가서 아 없 이 버 렸 나. 그러나 나 는 아 직 살고 있 나. 아마도 내가
 허구의 부 까지 사 는 모 양 이 라고 나 는 생 각 한 나. 내가 오래 살고 있 ^{은 원}
 인 은 나 른 곳 이 마 나. 즉 아를 삼 행 제 와 그 가족 즉 손 자 들 이 광 채 들 보
 고 살고 있 나. 나에게 는 아 모 별 것 이 없 나. 다만 아를 삼 행 제 그 가족
 들 이 나의 자 랑 꺼 리 라고 나 는 생 각 한 나.
 앞으로 세 월 이 흘러 가 는 라 면 그 북조선 쉼 쉼 과 그 룬 룬 광 들 의
 쉼 쉼 이 마 려 하 였 나 는 것 들 누구 나 잘 알 것 이 나. 그 쉼 쉼 이 있
 으 리 라는 것 을 나 는 잘 깨 밋고 이상 사 실 들 을 쓰 게 리 나.
 북조선 에 나 가서 볼 하 려 수 많 은 사 람 들 에 리 볼 들 조 선 인 민
 들 이 어떻게 살고 있 나 는 그 자 서 한 사 립 들 을 나 보 나 리 말 나 는
 사 람 은 없 을 것 이 나. 즉 리 방 에 나 가 리 볼 들 인 민 들 과 함 께 오랫동안
 잘 안 살 아 볼 사 람 만 이 그 가 보 하 고 른 비 칼 한 인 민 들 의 생활 을 잘
 알 것 이 나. 혹 이 려한 간 부 일 군 들 이 리 방 으 루 들 광 을 나 가 게 리 면
 항상 고 금 대 우 를 밋 기 때 문 에 그 사 람 들 은 아 모 것 을 못 리 나.
 리 후 히 나 는 쉼 쉼 에 서 나 간 사 람 들 이 리 나 간 후 에 리 오랫동안

의 땀에서 그 인원을와 함께 살았기때문에 다른사람들이 모르는사
실을 더 잘 알게 되었다. 그러우라서 한 사실을 은이글로는 다 쓸수 없다.
이상으로 허위와 내가 북조선에 가서 더욱더 마즈박 채우언름만
떨어져 살아왔다는 사실을을 간단하게 쓰면서 쓸친다.
같은 글은 허위의 위에서 다른 여러사람들에게 대하여 간단하게 쓰
려고 한다.

1956년 - 1960년은 그 이상 당시에는 소련에서 4간 수밖은 사람들
이 다, 4상검토에 걸리어 카우르, 큰 여러 지방 산골 광산, 환광,
평양조항 같은 소위 그 큰범 농장으루 내 쫓기었다. 그 사람들을 여겨
그 한심한 령배살여라는 것이 악되었다.

주 박항우, 박이원, 최철홍, 고희망, 박광식, 허빈, 리용식, 김영수,
김혁룡, 안일, 리준백, 서훈식, 장우영, 장부환, 최종학, 박태준,
김철운, 등등의사람들이었다. 여중사람을은 4번 내 가 기억하는
사람들이다 그 외에 2명은 4사람들이었다. 그 사람들 중 어떤 사람
들은 가족을 아내들과 부인을까지 다 쫓기어 산골 지방으루 내 쫓다.
그들의 아이들은 이 소련으루 들어 오게하고 3방치하여 비명적으로
죽음을 넘다가 체포로 당하고 관공에 막아죽곤 하였다. 내 쫓기은
사람들은 결국은 다 죽어 가지 못하는 령책이었다.

그 허벌된 사람들의 부모나 자식을은 이 소련 와서 살면서 그들끼리
처를 밟고 계속 북조선 령부와 같이 Block에 있는 북조선의
사관에 붙여 하나 계속 아본대함은 없다. 그 사람들 중 어느 누가 죽었는
지 알았는지 그들의 운명에 대하여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또한 한번 거음 하에 쓰고 싶은 것은 북조선에서 그 4상검토에 걸린 여
러사람들, 소련에서 4간 사람들, 소련 와서 공부하던 유학생들,
중국에서 들이온 사람들, 북조선에서 들이온 애국자들, 이권조선
해방운동에 열심적으로 활동한 쿠비발리 산 투쟁자들, 리호선, 허
불학 같은 사람들이 다 허벌되어 죽어 가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그 죽어간 사람

를 다수는 로동당원 열심과 열자들에 의해 받아들였다. 그때리고 날로 밝아
아주이던 나고한다. 박금철, 박이환은 그 형제 받아들였다
할 때부터 신령에 대해에 나가나온대로 쓰려고 한다.

1959년-1960년 2시기에는 이전부터 일본에서 살고 있던 조선사
람들을 다북조선으로 귀국하게 하는선권사업, 김책에서 작되었다.

그 김책과 신령에 따라 수 많은 귀국용포를 내북조선으로 귀국하
게 되었다. 그 귀국용포들을 바치고 김책에서 배수업에 대한희
망강화였다. 사행권을 배하고 조발 생활에 필요한가정기구들을
다들 배하고기다렸다. 그래서 여러 차례를 걸쳐서 10만 명여
귀국하게 되었다. 그사람들 중에는 좀가난한사람도 있었고, 음으로
사건사람들도 있었고 다수들은 잘 사는사람들이었다. 부자들은 자기
부동산을 다 팔아 가지고 와서 북조선 김부까지 가지게 하였다.

그들의 다수는 라최고기술과 직업을 가진사람들이었다. 특히 학
문화 기술방면에서 훨씬 앞선사람들이었다. 귀국한사람들은
평양에 가서 여러도시, 구역, 농촌에 배치되어 살게 하였다.

일본과 같이 무행하고 발전은 자본주의나라사회에서 살던 그사
람들에게는 그북조선 김책이 또 커히 잘 배나를 배서 귀국하게 된
것이 큰 원망이었다.

한번은 내가 평양에 와서 들이갈 김로 있고 김태관에르날에는 들이
지못하게 하니 평양시 김은환공원같은데 밖아리서다가 귀국용
포아르며들을 봤나 이자기 한 걸이 있었다. 그아르며들은 잘과 잘
이 잘하였다. "우리 일본에서는 들만 있으면 쌀도, 고기도 무엇이든 없는
것이 있어서 살이 갖는데 이북조선에 와서는 들을가지고르 아흔고르 쌀것
이 있어서 배를 곯으면서 살게 된다 이런기 박희일이 어리르던 말이었어"
말하면서 몹시 슬퍼하였다. 계속하여, "사촌님은 말은 들도 쟁으로
들어갈 리방에 있는이 그것이 얼마나 명량인가, 우리는 인제는 아모데르
칼은 없으니 생각하면기가 북히어 저편을 갖는지 모르겠고" 말하면

8.

인민들은 직광할 시간이 끝나면 밤낮 자랑하고 있는 수상님의 퇴각과 역사
 를 연구하는 강연회, 학생우류가야 했고 평양시 건설강우류사
 등 원로가야 했다. 그 평양시에는 흥행중이라는 것이 없이는 누구런
 못들어간다. 그 흥행중이라는 것은 다만 직광예시들 광각하는 사람들에
 게 내구금환부. 게 보사령에는 아나름가. 어느 권척이 죽거나 위음환병에
 드 칼이 가 볼 수 있겠다.

평양시 상권에는 여러가지 고금물품이나 끈고금, 즉 외환수출품을 들
 태우고 사람들에게 구경반시키고 판매하는 출는다. 이것이 죽거금치
 광어하는 것이 아나고 무엇인가?
 후 외국순남들이나 어떤 국가 대표단들이 평양에 오게 되는 때에는 평
 양시에 살고 있는 불구과 (병선) 들을 동역 출스루니물군한다.

북조선 정부와 그 공로장근당들의 정책은 다만 거금 자랑뿐이다.
 수 많은 애국자들을 드살 광어물아 넣고 죽어가게 하는 정책이야
 말로 약속하기 짝이 없다.

김일성이 자기는 광범 불멸론을 생각하고 수 많은 권실한 애국자
 들을 허심사 ~~한~~ 죄는 먼치못할 것이다. 그 죄를 말아말아 죄자차의
 자 커르 죽고 말았다. 아바르 그 약속한 제르가 끝날 때가 돌아왔고
 생켜한다. 나르나이 불은 사람으로 다만 한 가지 만원하고 있었다.
 김일성이 죽는 것을 보고 야 내가 죽어야 한다는 원이 있다. 사람이
 사는 불생에서 누구에게나 한 번은 그 죽음이 오는 법이다 그 죽는 것은
 누구나 먼치못하는 법이다. 다본 그 차이는 나어 원이 죽느냐? 허이
 서 죽느냐 하는 것이 문제라고 있다.

나는 평양에 오게 되면 어느 사람들을 이할림 없이 게 추일만 여관
 에서 살아갈 것이다. 밤낮하고 있는 위험사임은 자어르를 갖는 것
 여 관아라는데 하루 밤만 자고 나르 이가 부를 부를 치어서 그고 병에
 우크일 것이다. 가보하게 사는 사람들을 여겨는 할아법을 잊어가고는 권해
 없다. 모욕을 하고은 임원복을 그양 연게 리나 이가치고와 지부원어인 것

은가? 평양시에서 거리를 44번 쉬고 먹는 나무 잎이 골목마다 다가가 주자
다하고 있다. 그 사람을 어떤 장소에 누가 열었다는 말은 국가에 큰 돈을 지불
것이다. 후회 후 손님을 44출입통행증으로 가경 사람이 볼 때 4444번은 원
종될 때로 주사르하지 않고 그 사람을 죽을 때 4444고 있다.

이 세상에 어느 4444로 사에 불구라 들이 없이 사는 곳 이 있는 지 44는 4
이 밝은 사람으로 그 원별 일은 힘 보았다.

그러나 44 수로로 흥행증이 없이 못 4444개 하는 수로로 사는 각 분
북조선 수로 평양 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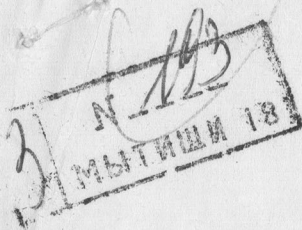
은 세상에 어떤 44라 어떤지 없는 2월 4444한 링 책 만스 먼지 밝게 하
기 자랑 받고 살아간다.

나는 리로에 와서 조종한 기회만 가지 거 리엔 리 상수원이 라고
말 못 부르키는 북조선에 가서 살 려 될 더욱히 마르 막 44년 동안
살아가던 그 일 이 4444알 이 보아는 것 리 될 서 물 거 리 어서 원 링을
수 없이 그 날 그 날 볼 보 내고 있다. 말 이 외름 44444444를 들
고는 웃음로 웃고 말 으로 불 지 양기 삶은 2세 될 볼 보 내고 있다.
러 자 서 할 것 을 다 산 자 변 끝 이 볼 보 리 않는다.

이 장으로 허위 이 와 44에게 대 하여 쓴 2개 북조선 링 세 에 대 하여
내가 팔 아는 사실 들 을 쓰 면 서 쓴 다.

1995년 8월

МГЕРУСЯС 시 에 리 올 열 린다.



허익의 복인 윤영원 4가보내본
허익의 의뢰서 원본.



Узбекистан

г. Ташкент - 702125

ул. Сайфулина дом 5

Тянь Ван - тон

г. Мытищи - 141018

Московская область

Новомытищинский протект дом 80 корпус 9 кв 51

Юн Е. К.